

[삼성전자] 아프리카 시장 공략



삼성전자 아프리카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축구선수인 디디에 드로그바를 내세워 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

자는 드로그바가 출연하는 광고를 나이지리아, 케냐 등 아프리카 49개국의 공중파 TV와 유선채널을 통해 내보낸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아프리카 환경에 맞는 제품들을 출시한다고 한다. 냉장고, 듀얼SIM폰 등 아프리카의 환경에 맞춘 제품들을 통해 현지인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드로그바를 단순히 삼성제품의 광고모델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삼성이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많은 만큼 드로그바를 삼성 CSR활동 홍보대사로 삼아, 더욱 더 친근한 기업, 더욱 더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전했다.

[대웅제약] 우루사 광고 2탄



대웅제약은 축구스타 차두리를 앞세워 우루사 광고 2탄을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차두리가 집안일에 지

친 주부를 위해 ‘간 때문이야’라는 로고송과 함께 청소를 도와준다. 여러 청소 장면들을 통해 ‘우루사가 간의 미세담도를 깨끗하게 해줘 피로를 풀어준다’는 이미지 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대웅제약은 ‘차두리 광고’를 통해 첫 번째 광고의 성공처럼 시장점유율 및 매출 상승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루사의 광고대행사인 휘닉스커뮤니케이션의 관계자는 “2탄 광고는 기존에 히트를 쳤던 캐릭터와 음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컨셉을 통해 우루사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고 전했다.

[소니코리아] 소니 알파 NEX-5N 광고

소니코리아는 카메라 알파 NEX-5N의 광고 캠페인에 배우 이병헌을 내세웠다. 이번 광고는 알파의 브랜드 캠페인 주제인 ‘교감’을 콘셉트로 정하고 제작되었다고 한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처음으로 알파를 시작하다’라는 광고 카피를 통해 누구나 전문



가급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NEX-5N의 매력을 부각시키려고 했다”고 전했다. 알파 NEX-5N

은 1,610만 화소 엑스모어 APS HD CMOS 센서를 탑재해 전문가 수준의 우수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릴리즈 타임을 0.02초까지 줄이도록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존 미러리스 카메라 중 최고 수준인 초당 10매의 연속 촬영을 지원한다.

[두산] 두산그룹 새광고



두산 박용만 회장의 어록들이 두산그룹의 광고 카피로 사용돼 화제다. 최근 방송된 ‘사람이 미래다’ 3

차 광고 캠페인 ‘두산이 젊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6번째 ‘카페 편’과 7번째 ‘우산 편’이 그 예이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박 회장의 말과 트윗 중 젊은층의 호응이 가장 컸던 것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카페 편은 박 회장이 트위터에 남긴 “좋지 않은 점이란 앞으로 좋아질 점이라고 생각하러 한다”고 답을 단 것에 착안했으며, 우산 편은 경우 ‘콘엑스포’에서 대학생 참관단 10여 명과의 대화에서 박 회장이 “사랑의 단계에는 관심, 호기심, 열정, 연정, 진정한 사랑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신뢰를 위해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한 것을 인용, 광고로 만들었다고 한다.

[SK텔링크] 국제전화 00700 새광고

SK텔링크는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순정마초 커플’로 인기를 얻은 정재형과 정형돈을 SK국제전화 00700 모델로 발탁해 신규 TV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번 광고는 세 자리 번호를 누르는 소비자들에게 00700은 누르는 즐거움이 있는 국민번호임을 전달하는 콘셉트로 제작됐다고 전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국민마초 커플 정재형과 정형돈의 ‘자꾸만 보고 싶은 매력’이 한 번 누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뽀뽀처럼 ‘자꾸만 누르고 싶은 번호 00700’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진다”며 이들을 광고 모델로